

한국실리콘, 타이완과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태양광용 폴리실리콘(Polysilicone) 생산기업인 한국실리콘은 2017년까지 타이완의 네오솔라파워(NSP)에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11월22일 발표했다.

계약금액은 5억5000만달러(약 6000억원)이고, 선수금 방식의 장기 공급계약이다.

최인준 한국실리콘 경영관리팀장은 “최근 세계시장에서 A급 폴리실리콘은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한국실리콘은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이 4000톤으로 작은 편이지만 품질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0/12/6〉